



수지·김우빈 세계 한류 팬 공략 나서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美·中·대만·홍콩 동시 방송

한류스타 김우빈과 수지가 주연하는 KBS 2TV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가 세계 한류 팬 공략에 나선다.

‘함부로 애틋하게’는 오는 7월 6일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미(全美) 지역과 대만, 홍콩에서도 동시 방송된다고 제작사 삼화네트웍스가 24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20부작인 ‘함부로 애틋하게’는 가슴 아픈 악연으로 헤어진 두 남녀가 훗날 톱스타와 다류멘터

리 PD로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극이다. KBS 2TV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의 이경희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다.

드라마는 한중 동시 방송을 목표로 기획·제작됐다. 중국에서는 ‘임의의련’(任意依戀)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사이트 유쿠투더우(優酷土豆)에서 방송된다.

제작사는 미주 지역 공략을 위해 케이드라마를 주로 방송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드라

마피비에 판권을 판매했다. 북미와 남미 팬들은 한국과 비슷한 시각에 ‘함부로 애틋하게’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만과 홍콩에서는 인터넷이 아닌 현지 TV채널을 통해 한국과 동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제작사는 현지 언어 더빙이나 자막 작업에 별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동시 방송을 위해 후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화네트웍스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도 계속 판권 판매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네버엔딩 ‘태양의 후예’…2017년 신드롬 예열 시작

KBS “내년 방송 목표 ‘제2의 태양의 후예’ 제작”

‘태양의 후예’로 한류의 불씨를 살린 KBS가 ‘제2의 태양의 후예’를 만든다.

정성호 KBS 드라마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2의 태양의 후예’ 제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따르면 KBS는 ‘태후 프로젝트 2017’을 가동, 내년 방송을 목표로 ‘태양의 후예’와 궤를 같이 하는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

그는 “함께 했던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과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발진한다”며 “김은숙 작가를 포함한 제작진, 출연진에 제안을 했고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제작사인 NEW

와도 협의 중이다.

그러나 “배우들이 대본을 받기 전에 출연을 확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작가진이 “‘시즌2’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즌2라고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시즌2, 시리즈, 전혀 다른 작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나큰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국내외 팬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며 그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양의 후예”는 국내 신드롬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제3의 한류를 점화하는 신화를 썼는데 제2의 프로젝트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태양의 후예”의 후반부는 사실 아쉬웠고 제작진은 ‘우르크에서의 활동이 더 길었다면 더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사전제작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노하우를 쌓았는데 이를 백서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라난 배경수 KBS CP는 “사전제작이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고 여러 방면에서 미리 많이 검토할 수 있었다. ‘태양의 후예’의 대본이나 규모는 사전제작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사전제작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는 생각을 밝혔다. /연합뉴스

美 ‘팝의 전설’ 프린스 떠나다

자택서 숨친 채 발견…오바마 대통령·마돈나 등 애도 물결



미국의 ‘팝의 전설’로 통하는 프린스(57)가 미네소타 주(州) 미니애폴리스 외곽 카버 카운티의 자택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고 AP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이 21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프린스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재 프린스의 자택에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프린스의 홍보담당자인 이벳 노엘 슈어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린스가 숨진 채 집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버 카운티 경찰국은 “사망자의 친척이 와서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사망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본명이 프린스 로저스 넬슨인 프린스는 7개의 그래미상을 받고 1억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미국 팝의 전설이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첫 노래를 작곡했고 1980년대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등과 함께 세계 팝 음악의 주축으로 천재 팝 아티스트로 불린다.

1978년 데뷔 앨범 이후 무려 32장의 정규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한 그는 6집 ‘퍼플 레인’(Purple Rain)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프린스는 이 곡으로 1985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주제가 작곡상도 받았다. 2007년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하프타임 때 선사한 공연은 역대 최고의 라이브 공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가수이자 작곡가, 당대의 연주자인 프린스는 가장 창의적인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혔다고 AP 통신은 소개했다. 그는 2004년 로큰롤 명예

의 전당에 입회했다.

프린스는 앞서 지난 15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공연을 마치고 비행기로 이동하던 중 목에 이상을 호소했으며, 이 때문에 일리노이 공항에 비상착륙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 컨스트리뷰에 따르면, 프린스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초 최소 한 차례 애틀랜타 공연을 취소했고 며칠 후애야 무대에 섰다.

프린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돈나, ‘롤링 스톤스’의 믹 재거 등이 일제히 애도를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전 세계 수많은 팬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일부 소수의 아티스트들이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프린스가 예전에 ‘강한 영혼은 규칙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프린스보다 더 강하고 대담하며 창조적인 영혼은 없다”고 추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린스를 “동시대의 가장 뛰어난 음악가이자 창조적 아이콘”이라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마돈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990년대 프린스와 함께 공연했던 사진과 함께 “프린스가 세상을 변화시켰다. 진정한 선지자다.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애도 글을 올렸다.

AP 통신은 프린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퍼플 레인을 비롯한 그의 앨범 4개가 아이튠스의 앨범 차트 1, 2, 3, 8위에 각각 오르는 등 불타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기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 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화 조들호>(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대로(재)
1 10 뉴스특급	00 우리 사는 세상(재) 05 네트워크 특선 <합성의 전설>(재) 55 별빛가족(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30 직언직설	0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일이
3	00 콘서트 필 50 안녕 우리말 55 튠트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1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미녀의 성>
8 20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25 우리집 골단지	30 글로벌24 55 버스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화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심이몽 관찰이 관찰아
12 4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요(재)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비바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라이벌 토크 부모 <엄마 없이는 못 살아>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제주바다의 꽃 육동>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황태탕과 어묵 대파 조림>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언덕, 청장교원 동부를 가다>
05:40 성공시대 기능 한국인 (도면 위에 펼친 기술 혁신 기계 제도 이준배)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40 으랏차차 아이쿠	
06:10 EBS 인문학 특강 <마루의 어드벤처>	11:40 한국기행 <세상의 끝 여행을 가다(재)>	16:00 캐니멀(재)	21:30 한국기행 <동해남부선 1부 영일만 여인야>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코코코 다코	21:50 EBS 다크 프라임 <나를 찾아라>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간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22:45 달라졌어요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30 로보카 폴리	23:35 시대공간
08:00 덩동덩 유치원 1~3	13:40 출가수 수학 EBS MATH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4:05 지식채널 e
08:45 코코코 다코	13:50 원더볼스(재)	18:00 생방송 특목TV 보너스!~4	24:10 EBS 특별기획 토크 <고전, 인간을 말하다(리미스)>
09:00 캐니멀	14:00 미술탐험대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09:30 원더볼즈	14:30 뽀롱뽀롱 뽀로로미즈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전 스페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5일(음 3월 19일 丁丑)

<p>子 48년생 취약점이 보이니 서둘러 보완해야겠다. 60년생 적오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에 신경 써야만 한다. 72년생 연결 고리가 잡으로 부실하니 관계의 설정과 활용에 유의하라. 84년생 공연히 헛수고만 할 공산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5, 66</p>	<p>午 42년생 이익은 생기자만 소량에 불과하니 크게 기대하지는 말라. 54년생 조침의 시기를 놓친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니라. 66년생 놔두면 다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78년생 훗날을 도모함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니라. 행운의 숫자 : 21, 09</p>
<p>丑 49년생 희망의 보따리를 짊어진 이의 재가 있었다. 61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 73년생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한다. 85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82, 27</p>	<p>未 43년생 장애물이 보이니 조심하자. 55년생 실현 가능한 원인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67년생 확실하게 한계를 긋지 않으면 장래에 남지한 임장이 되는 원인 요소로 작용한다. 79년생 현실성으로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2, 22</p>
<p>寅 50년생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62년생 총기는 굵았을 때 짜야하고 숲은 짙을 때 걸어야 하니라. 74년생 길한 기운이 모이고 있으니 순조로운 것이다. 86년생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안으로 모아들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8, 87</p>	<p>申 44년생 제반사를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56년생 참된 가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력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차분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자. 80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실철적이다. 행운의 숫자 : 75, 34</p>
<p>卯 51년생 여태까지 보류해 왔던 일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이다. 63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편곡에서나 헤쳐나갈 수 있다. 75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나 인연이 바하다. 87년생 감당할 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67, 49</p>	<p>酉 45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57년생 작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69년생 필필요한 것이 상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리라. 81년생 참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35, 63</p>
<p>辰 40년생 예상했던 이로부터 소식이 오리라. 52년생 실용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64년생 서두르다면 상대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음을 알라. 76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리라. 88년생 다양한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5, 82</p>	<p>戌 46년생 이미 던져진 주사위이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58년생 정교함과 섬세함이 성과를 도모한다. 70년생 제3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82년생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56, 83</p>
<p>巳 41년생 임시 봉합의 형태에서는 위험하므로 절대대로 아니 된다. 53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65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77년생 드디어 종결짓게 된다. 89년생 길경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3, 86</p>	<p>亥 47년생 본연의 의무에 충실 하자. 59년생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낫다. 71년생 제반 여건이 결합돼 제3의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밤심한다면 상대의 시합에 빠져들 수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77, 4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